

버섯을 主題로한 菌食啓蒙普及

韓國產菌類圖鑑 만들고파



會長 金 三 純

本學會 設立의 첫째 目的은 極히 特異하고 偉大한 役割을 하고있는 自然界의 菌類가 近代生物學의 躍進에 따라서 人生과 結合을 더욱 더 깊게하여 菌學및 其 應用面의 研究는 他先進國에서는 새로운 脚光을 받게 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菌學이 무엇인지조차 一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菌學이다.

이 菌學의 研究를 하며 其知識을 普及하는것이 하나의 目的이고 또 하나의 目的은 國際學會에 加入하기 위해서이었다.

1972年12月16日 創立總會를 갖고 이듬해 1973年 4月에 學會誌의 創刊號가 發刊되었으며 이어서 바로 國際學會에 加入을 했다. 그 다음에는 科總에 加入하는 일 만이 남아 있는 것이었다. 菌學이라는 낱말 自體부터 생소 한 것이어서 쉽게 科總에 加入이 될리가 만무했다. 나는 一年을 두고 기회만 있으면 菌學(mycology)에 관한 世界各國에 있어서의 研究活動을 紹介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一年後에는 科總에 加入도 되었다.

이제는 學會로서 갖춘 面模는 다 갖춘 셈이다.

1975年 4月 19日 科學의날에는 “버섯”을 主題로한 特別講演會를 갖었다. 人間은 그 食生活에 있어서 動植物 이두가지에만 依存해 왔으나 近代에 이르러서는 菌食도 합쳐서 비로소 完全한 食生活이 된다고 하여 菌食이라는 새로운 用語까지 생길 程度로 버섯이 차지하는 食品으로서

의 比重이 커진 이때에 이것에 對한 계몽講演은 時宜를 얻은것이라 해서 好評을 받았다.

學會活動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것은 研究發表 調查事業및 學會誌發刊이라 하겠는데 學會誌發刊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原稿募集에 時日이 걸려 苦心하였으나 이제부터는 軌道에 오른것 같다 그리하여 學會誌도 通卷第4號를 헤아리게 되었다.

學會誌發刊에는 적지 않은 費用이 든다. 그리고 每年 會員들이 거출하는 會費만으로서는 經常費充當에도 未及되는 상태이다 그러나 特別會員과 社會各界의 協助로 學會誌가 發刊되고 있는것은 고마운 일이라하겠다.

우리學會가 將次해야 할일들이 學會誌發刊外에도 山積하고 있으나 우선 서둘러야 할일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韓國產菌類圖鑑없다. 이것은 한 두 사람의 調查實蹟에 依存하려면은 적어도 2~30年의 時日을 要할것이다. 이것을 가능한 짧은 時日에 편찬하려면은 會員들의 分擔에 依하는 連合에 依한 材料수집 調查의 促進과 湧쳐진 힘 만이 要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遂行하려면은 莫大한 費用이 隨伴되어야 할것이며 分擔會員들의 사기를 돕기 위하여는 財政의인 뒷 바침이 있어야 할것임으로 本學會의 基金을 造成하는 일도 早速한 時日內에 이루어야 할 큰 宿題이다.

—도 착 순—